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단식 23일, 단식을 중단하며 ②

사람이 음식을 먹는 일은 살아 가기 위한 생존의 제 1조건이요, 절대 필수조건이다. 사람에게 먹는 문제가 가장 크다. 배가 부른 후에야 체면도, 예의도, 명분도, 명예도, 꿈도 생각할 수가 있다. 보통 사람은 일주일 정도만 굶겨 놓으면 다른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배성을 배부르게 한다는 것은, '합'을 행하는 행복한 포용국가'를 뜻한다.

단식 목적도 육체 건강을 위한 단식, 정신 수양(수도(修道))을 위한 단식, 항의와 저항을 위한 단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단식 장소도 정당 당사나 천막 등 부정부패, 병원과 학교, 교회나 사찰 등 많다. 중요한 것은 단식은 인간의 육체적·정신적인 한계에 대한 도전과 시험이며, 철저한 자기

와의 투쟁이다. 외부로 내건 단식의 명분과 목적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인내와 투지로 견디어내고 이겨내지 않으면 단식을 지속하거나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단식은 자기와의 투쟁이다. 단식은 자기와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한강성심병원에서 단식 11일째 되던 2018년 12월 13일(목)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오전 11시까지 단전(丹田)호흡과 내공(內功)의 호흡을 하고 잠들었다. 그런데 꿈결인 듯 온 몸이 따뜻한 기운으로 감싸서 환황하고 단식 시작 이후에는 고개 숙여있던 나의 생식기가 힘 있게 발기(勃起)해 있는 믿기 어려운 놀라운 체험을 했다. 구름 속인 듯, 다른 세계인 듯 따뜻하고 신비로운 세계였다. 우리 몸은 작은 소우주(小宇宙)이다. 진실로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다.

몸 앞면의 임맥(任脈)과 뒷면의 목맥(督脈)의 혈맥(血脈)과 경혈(經穴), 기(氣)가 뚫려 버렸는지, 그 날 이후 나는 단식을 계속해도 지치지 않고 온 몸이 따뜻하고 몸이 가볍고 정신이 상쾌했다. 임맥과 목맥이 통해 버리고 운기조식(運氣調息)의 호흡법이 잘 되면 나온다는 입 안의 점(玉水)이 그 시간 이후부터 단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을 먹으며 보식(補食)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진실되게 단식을 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내공의 호흡을 해서 하늘이 내려준 눈물겨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낮에 뜬 낮달처럼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민주평화당 지역위원장이지만, '부녀만 투쟁'이 아닌 '투쟁의 진정성'을 보여 주고 싶었다.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쇼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진정한 투쟁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 밖으로 내건 명분과 안으로의 진실이 부합하는 '진리를 위한 투쟁'을 보여 주고 싶었다.

2018년 12월 13일, 단식 11일째, 한강성심병원 703호실에서 있었던 신비로운 체험 때부터 말이나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하고 무한한 '진실의 힘', '진리의 힘'을 온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표현할 적절한 말이 없어서 부득이 편의상 진실의 힘, 진리의 힘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나 자신과의 약속 이행,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자가 되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나는 승자다. 동시에 배를 꾸는 처절한 자기 성찰과 참회(懺悔)의 시간도 가졌다. 나는 시련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말 많은 세상 말 많은 정치판이라서 나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도 취지와 긍정적인 면은 보지 않고 부정적인 면만 보면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단식해라', '그런다고 공천 주는 것 아니다', '개인도 당도 득(得)이 안된다' 등 비아냥과 수모(受侮)를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인생 도처에 널려 있는 교만과 거짓, 이기심과 무례는 수천 년 인류의 영원한 적(敵)이라는 평소 나의 생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다.

社說

낙숫배 안전 챙겨야 한다

2017년 낙숫배 이용객 수는 415만명으로, 직전 해(342만명)보다 21%나 늘었다. 최근에는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연히 사고는 더 늘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87건이었던 낙숫배 사고 건수는 2017년 26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명 피해도 43명에서 10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낙숫배 대부분은 새벽에 출발해 오후 4~5시 들어오는 '당일치기' 방식으로 운영된다. 결국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포인트를 쫓느냐가 낙숫배 선장들의 능력이 된다. 낙숫배 사업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선장의 '포인트 선점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한 조업도 많다. 배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낙숫배'가 늘어난 것도 문제다. 현재 대부분 낙숫배에는 선장·선원 1~2명이 탑승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대표적인 것이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구명조끼는 말하자면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다.

낙숫배관리육성법에 따르면 선장은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게 돼 있다.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선장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법이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

운영·관리상의 허점도 많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명·소방설비를 갖춘 10급 미만 어선을 확보한 뒤 지자체에 신고하면 누구나 낙숫배를 운영할 수 있다. 규정된 승무 선원도 1명뿐이라 진입 장벽도 낮다. 낙숫배는 사실 신장만 고용하고, 배안 있으면 누구나 시정도로 '낙숫배'가 늘어난 것도 문제다. 현재 대부분 낙숫배에는 선장·선원 1~2명이 탑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무리한 조업도 많다. 배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낙숫배'가 늘어난 것도 문제다. 현재 대부분 낙숫배에는 선장·선원 1~2명이 탑승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詩讚羔羊

詩讚羔羊

▷ 뜻: '시전(詩傳) 고양편(羔羊編)에 문왕(文王)의 덕(德)을 입은 남국(南國) 대부(大夫)의 정직(正直)함을 칭찬(稱讚)하였으니 사람의 선악(善惡)을 말한 것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가스보일러 사용 안전수칙

아까운 청춘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의식마저 잃게 한 강릉 펜션 사고가 차가운 겨울 다시 한 번 우리의 가슴을 찡찡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이번 사고는 가스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어긋나면서 가스가 새어 나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주변인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조그만 더 가스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화학시절을 기

념하며 떠난 청춘여행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럼, 겨울이면 매년 반복되는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시공을 받도록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가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어도 건설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시공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무자격시공자에게 설치를 의뢰해서는 안된다.

둘째, 물적 안전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가스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누전차단기, 소화기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만일에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2010년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셋째, 인적 안전의식을 갖추도록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의식이다.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기적으로 배기통 연결 상태, 급·배기구 막힘 상태 등 안전점검을 생활화한다.

올 겨울도 최악의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건강한 일상과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스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절실한 시기이다.

유동석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장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a woman and a man, with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and '국인이 행복한 대한민국'.